

# 삼성자동차 빅딜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67
----------	----

발의년월일 : '98. 12. 17

발 의 자 : 김 인의원외15인

## 1. 주 문

삼성자동차 빅딜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산경제 회생의 유일한 돌파구인 삼성자동차의 빅딜은 부산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삼성자동차 빅딜을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

## 2. 제안이유

- 삼성자동차 빅딜움직임과 관련하여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부산경제 회생이 돌파구인 삼성자동차빅딜 철회 강력 촉구
- 부산의 경제지표가 전국 최악인 현 시점에서 지역의 유일한 기술집약산업인 삼성자동차 빅딜은 곤경에 처한 부산경제가 회생불능 상태로 전락시키는 처사임
- 4백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한 산업으로써 부산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될 삼성자동차의 빅딜 추진은 재고하고 삼성자동차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 강구
- 삼성자동차 빅딜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각 철회 요구

## 3. 보내는 곳

청와대, 국무총리, 금융감독원, 국회, 산업자원부

## 결 의 문

(대안 없는 삼성자동차 빅딜반대)

우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 의원일동은 정부의 삼성자동차 빅딜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서 부산경제 희생의 유일한 돌파구인 삼성자동차의 빅딜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그 부당성과 반대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우리 의회의 확고한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리 부산의 경제상황은 실업률 9.4%, 실업자 16만4천명, 지난해 12월 이후 부도업체수 2,500여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전국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는 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상황하에서 중앙정부가 지원 하지는 못할망정 부산의 유일한 기술집약산업인 삼성자동차가 정상조업을 시작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빅딜 운운담은 곤경에 빠진 부산경제에 치명적 상처를 주게됨을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삼성자동차가 빅딜될 경우, 그동안 투자된 4조원 가량의 투자비가 사장될 뿐 아니라, 약3조8천억원(연간 8만대 기준)의 생산효과 상실과 삼성차 생산직원을 비롯한 4만5천여명의 실업자를 낳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국은 부산경제를 희생불능한 상태로 내몰게 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둘째, 그동안 부산은 성장의 뒀안길에 소외되어 허울뿐인 제2의 도시로 침체일로에 있었던 바 삼성자동차는 이러한 부산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4백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유치한 산업으로써 향후 부산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시민이 기대하고 있어 삼성차의 빅딜 추진은 이러한 부산시민의 각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빅딜 대신 삼성자동차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셋째, 우리는 그동안 선단식 경영을 통한 재벌의 폐해를 모르는 바 아니며 재벌의 해체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국가경제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빅딜 논의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국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있는 바 우리 부산은 과거에도 이러한 정략적 방식에 의해 대기업이 무더기로 도산됨으로써 경제가 추락되는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어 최근에 빅딜 움직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

오늘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과 같은 사유로 참담한 부산의 운명을 좌시할 수 없어 삼서자동차의 빅딜을 강력히 반대함을 선언하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4백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고 내외에 이를 천명코자 한다.

1998. 12. 17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의원 일동